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모든 정답을 교육받아 자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할 줄 알게 된다. 이러한 인간의 학습 능력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 현재의 인공지능이라고 설명한다. 인공지능 개발 초기에는 모든 것을 설명하여 학습시켰지만, 이제는 데이터를 제공하면 알아서 학습한다. 그렇게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진화했다고 한다.

지금 인공지능은 글, 그림, 영상 등 여러 형태를 이해하는 멀티모달이다. 김대식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간단한 영화를 제작해보길 추천한다. 실제로 많은 일반인들이 전문지식 없이 다양한 분야의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이것이 '인공지능이 여러 직업군을 위협한다' 말하는 원인이다.

그렇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이겨내며 보다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야 할까? 아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견주어도 헛갈릴 만큼 발전했다. 우리는 이 인공지능의 능력을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인공지능은 입력한 프롬프트의 질에 따라 도출되는 예측의 질도 달라진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명령해야 한다. 또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아첨하므로 이에 넘어가지 않는 판단력도 필요하다. 불필요한 것을 내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파악하여 다시 고칠 줄 알아야 한다. 새로운 인공지능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이를 명심하여 남들보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